

믿 지 실 음 혜 천	<h1>BUDDHANARA</h1>	FAITH WISDOM ACTION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무자년 정초 칠일 기도 회향 법회

둘째주 토요일 (12일 저녁 9시) - 일요일 (13일 아침 6시) 성도재일 철야 정진

셋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넷째주 일요일 11시 108 대참회 법회 (자비 수참)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심오한 믿음 가진 사람
 인생의 높은 목적 잃지 않는 사람
 행위가 순수한 사람,
 자기를 조심스레 돌아보는 사람
 지혜 완성에 온 마음 기울이는 사람,
 항상 깨어 있는 마음 지닌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큰 기쁨 얻게 되리.

The man who arises in faith, who ever remembers his high purpose, whose work is pure, and who carefully considers his work, who in self-possession lives the life of perfection, and who ever, for ever, is watchful, that man shall arise in glory.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8 년은 부처님 말씀에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만나는 사람이 부처요, 이르는 곳이 정토”

법전 조계종 종정예하가 불기 2552년(2008년)을 맞아 24일 신년법어를 내렸다.

법전 조계종정예하는 “무자년 새해 아침이 밝으니 위광이 대천세계로 뻗어나고 천지의 서기가 집집마다 쌓이니 이르는 곳마다 감로문이 열린다”고 축원하고 새해에는 “곳곳에서 원융과 통합의 길이 열리고, 가난 속에서 안락의 대시문이 열려 만나는 사람이 부처요 이르는 곳이 정토이니 집집마다 보배는 해마다 늘어나고, 풍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법어했다.

新年法語

무자년(戊子年) 새해 아침이 밝으니
위광(威光)이 대천세계(大千世界)로 뻗어나고
천지(天地)의 서기(瑞氣)가 집집마다 쌓이니
이르는 곳마다 감로문(甘露門)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진리의 우뢰가 일어나고
시방(十方)에 가득한 장애(障礙)가 사라집니다.
곳곳에서 원융(圓融)과 통합(統合)의 길이 열리고
범성(凡聖)은 차별(差別)없는 일미(一味)를 이루니

범부(凡夫)는 번뇌(煩惱)속에서 부처를 빚어내고
빈여(貧女)는 가난속에서 안락(安樂)의 대시문(大施門)을 엽니다.
사람마다 이와 같은 현기묘용(玄機妙用)을 갖추니
만나는 사람이 부처요 이르는 곳이 정토(淨土)입니다.

가가년년부(家家年年富)요
풍류일일신(風流日日新)이라
집집마다 보배는 해마다 늘어나고
풍류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戊子年 元旦 佛紀 2552年 1月 1日

大韓佛教 曹溪宗 宗正 道林 法傳

1월의 경전 공부:

화엄경

수행의 대요로 ‘보현행원’ 성과

<화엄경(華嚴經)>은 대승경전 가운데 최고의 경전으로 평가 받는 경전이다. 일찍이 중국 불교사에서 이 경전을 소의로 화엄종이라는 종파가 탄생했으며, 또 화엄학이라는 불교교학 가운데 최고의 학파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원 이름은 <대방광불화엄경>이며 <잡화경(雜花經)>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사상사의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화엄사상이며 특히 동양사상에서 화엄철학은 재래의 노자사상 등 모든 사상을 회통하여 융화시킨 큰 역할을 하였다.

한역본에는 세 가지가 있다.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진역본(晉譯本) 60 화엄과 실차난타가 번역한 당역본(唐譯本) 80 화엄이 있으며 반야삼장이 번역한 40 권 본도 있다. 그러나 반야삼장이 번역한 본은 앞의 두 번역본의 입법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완역본으로 볼 수 없다. 60 권 본은 34 품으로 되어 있다 80 권 본은 39 품으로 되어 있다.

이 경은 부처님이 마갈타의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고 해인삼매에 들어 여래의 정각 경계를 보여주었다 해서

여래정각개현경이라고 말하듯이 법신 비로자나불의 과해(果海)를 설해 놓은 경으로 알려져 있다. 성도한 석가모니가 해인 삼매에 들어 있고, 그 삼매 속에 화장세계의 모든 장엄상이 나타나고 비로자나의 법신정도의 불가사의한 경계가 나타나는데 문수, 보현 등 시방의 한없는 보살들이 등장하여 비로자나의 공덕과 법성의 이치를 찬탄하면서 동시다발적인 설법장면을 보여주는 경이다. 경문이 매우 장황한 서술을 전개해 나가며, 수식적인 용어가 많이 나온다.

화엄교의의 주요내용은 법계무진연기설이며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사법계설과 육상원융성, 그리고 심현문이 설해진다. 특히 화엄교의에서 중요한 것은 사사무애의 이치이다. 일체제법이 상즉상입(相即相入)하여 온 법계가 하나의 큰 그물과 같은 만다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만법을 통합하면 결국 일심으로 돌아간다는 유심도리를 설하고 있다. 예로부터 화엄대의를 나타내는 말에 통만법명일심(通萬法歸一心)이라는 말을 써 왔다.

“만약 사람이 삼세 모든 부처님을 알려거든 법계의 성품을 관찰하라. 모든 것이 모두 마음이 만들어 내는 것이니라.”

화엄 4 구계로 알려진 경문 가운데 나오는 화엄대의를 요약한 말이다.

<화엄경>을 전통강원에서는 대교(大敎)라 불려 왔고 또 중국의 교가들이 교상판석을 하면서 원교(圓敎)라 불렀다.

바닷물이 육지의 모든 강물을 받아들여듯이 화엄법문이 모든 다른 제경의 법문을 수용하여 융합해 있다는 뜻이다.

화엄법문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만법을 조화 통일하는 것이다. 분과적인 분열을 극복 총체적인 하나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는 불교사상의 보편적인 가치의식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부처님의 동체대비가

<화엄경>에서는 보현행원으로 설명된다. 불가사의한 해탈경계를 증득한 비로자나의 경계를 실천적 체험으로 얻어내는 것이 보현행원이다. <화엄경>은 바로 보현행원이 수행의 대요가 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10 개의 바라밀로 나누어

실천구행할 것을 강조 한다. 옛날의 화엄대가들은 <화엄경>의 설치와 법회수를 구분 7 처 8 회(60 권본) 혹은

7 처 9 회(80 권본)로 때와 장소를 나누어 보았다. 마지막 <입법계품>이 전체 경의 4 분의 1 에 해당하는데 이 품 앞의

내용을 1 부라 하고 이품을 2 부로 전후를 나누어 1 부는 여래의 법 자체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2 부는 법을 구하는

구도행각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하였다. 이를 법과 사람을 중심으로 인과연기를 밝혀 놓은 것이라 한다. 여래가 출현하는

인과연기를 법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에서 설하여 법을 사람이 닦아가는 과정을 수행의 지위 단계를 설정 52 위의 절차를

설해 놓은 법문이라는 것이다.

다섯 가지의 바른 신행

부처님이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설산에 있는 큰 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다섯 가지 바른 신행에 대해 가르쳤다.

“설산에 가면 그 산에 의지해 자라는 크고 높고 넓은 나무가 있다. 그 나무는 다섯 가지가 훌륭하다. 어떤 것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뿌리가 깊어 흔들리지 않으며, 둘째는 껍질이 매우 두꺼우며, 셋째는 가지가 멀리까지 뻗어 있으며, 넷째는 그늘지지 않는 곳이 없으며, 다섯째는 잎이 매우 무성한 것이다. 이것이 설산에 의지해 자라는 큰 나무의 다섯 가지 훌륭한 점이다. 선남자 선녀인도 저 나무처럼 훌륭한 가르침에 의지하면 다섯 가지를 크고 무성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신장익(信長益)이니 믿음을 더욱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계장익(戒長益)이니 계율을 더욱 잘 지키는 것이다.

셋째는 문장익(聞長益)이니 법문을 더 많이 듣는 것이다.

넷째는 시작익(施長益)이니 보시를 더 많이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혜장익(慧長益)이니 지혜가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남자 선녀인이 바르게 신행하는 다섯 가지 길이다.” 증일아함 48 권 예삼보품(禮三寶品) 제 7 경

<법화경>의 표현이지만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신자를 "불자(佛子)"라고 한다.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뜻이다. 불교신자를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자식은 어리지만 나중에 어른이 된다. 마찬가지로 중생은 어리석지만 나중에 부처가 된다. 어린아이가 커서 반드시 어른이 되듯이. 이렇게 보면 불자란 참 거룩한 명칭이다.

"미래의 부처님"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중생이 미래에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할 일이 있다. "오정신행(五正信行)"을 실천해서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다섯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해야 한다(信長益)는 것은 진리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불교는 허탄한 사술이나 운명론을 가르치지 않는다. 연기의 이법을 진리라고 믿고 스스로 바르게 닦아나가야 한다. 그래야 샅된 길에 빠지지 않는다.

둘째 계율을 더욱 잘 지켜야 한다(戒長益)는 것은 항상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규범에서 벗어나면 시비에 휩싸인다. 규범이 아니더라도 악행은 옳은 것이 아니다. 바르게 살기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셋째 법문을 더욱 많이 들어야 한다(聞長益)는 것은 바른 법을 배우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뜻이다. 법당에 오래 앉아있으면 향내가 몸에 배듯이 자주 절에 나가 법문을 듣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을 깊이 알고 실천할 마음이 생길 것은 당연하다.

넷째 보시를 더욱 많이 해야 한다(施長益)는 것은 복을 많이 지으라는 것이다. 복이란 뒤주 속의 곡식과 같아서 채워 넣지 않으면 금방 바닥이 난다. 남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면 그것이 공덕의 씨앗이 되어 보물창고를 채우게 된다. 어찌 게을리 할 수 있겠는가.

다섯째 지혜가 더욱 빛나게 해야 한다(慧長益)는 것은 어리석음을 씻어내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참다운 지혜는 남을 해치는 술수와는 거리가 멀다. 진리를 바로 깨닫고 깨달음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

이 다섯 가지는 "미래의 부처"인 불자가 "참다운 부처"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다른 사람은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불교신자라면 반드시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
해의 불교:

“인도 불교가 다시 살아난다”

“불가촉 천민, 소외계층 불교관심 높아져”

“최근 인도불교가 불가촉천민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교운동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세계불교 부흥의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 불가촉천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불교 NGO 단체인 잠부드비파 트러스트(Jam pudvipa Trust)에서 국제협력국장을 맡고 있는 망게시 다히와일(Mangesh Dahiware)씨는 인도 불교운동의 중요성을 이 같이 역설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는 지난 12일 서울 만해 NGO 교육센터 소교육장에서 인도 불교 NGO 단체를 대표로 참석한 잠부드비파 트러스트 국제협력국장 망게시 다히와일 씨를 초청한 가운데 ‘인도 불교운동의 현재를 듣는다’를 주제로 인도 불교 NGO 활동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대담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망게시 다히와일 씨는 “인도 범세계불교교단우의회(TBMSG) 산하 잠부드비파 트러스트가 펼치고 있는 인도불교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인도의 불가촉천민들을 자아를 새롭게 발견하는 불자로 변모시켰다는 것”이라며 “인도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2억 5000만 명의 불가촉천민 가운데 3000만 명이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하면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불가촉천민이란 인도의 신분제도인 카스트체제에 속하지 않는 최하층민이다. 달리츠(Dalits)라고 불리는 이들은 비(非)달리츠들과 접촉조차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인간 이하의 차별을 겪으며 살고 있다. 그는 “인도 전 지역에서 매일 18분마다 불가촉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수많은 불가촉천민들이 강간, 살해, 폭행, 방화, 강제노역, 불법연행 등 무자비한 범죄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고통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카스트제도의 굴레를 벗어나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종교는 불교뿐이라는 고(故) 암베드카르 박사의 유훈을 실천하기 위해 인도 각지에서 여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가촉천민의 해방자’, ‘인도 현대 불교의 중흥자’로 널리 알려진 빔라오 람지 암베드카르(Bhimrao Ramji Ambedkar, 1891~1956) 박사의 사상을 계승한 영국 출신 로카미트라 법사가 창립한 잠부드비파 트러스트는 불가촉천민 등 하위 계층들의 능력개발,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다. 현재 인도 전역에 건립된 센터 50여 곳에서 5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56년 역사상 최대 인원인 50만 명이 동시에 개종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도 인구의 2%에 해당하는 2000~3000만 명이 불교에 귀의해 신행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들에게 카스트 제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불교의 진리를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대재앙 구호 불교계 적극 나서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참사...대책위 구성, 중앙총무기관.복지재단.봉은사 지원단 급파

지난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원유 해양 유출 사고로 태안 등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조계종이 긴급재난구호 대책위를 구성하고 재난복구지원본부를 설치, 대대적인 피해복구지원활동에 나선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지난 11일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12월 11일 긴급재난구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복구활동 지원을 펼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구호 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소속 2명의 실무자를 신속히 태안 사고현장에 파견하는 한편 제 7교구 본사인 예산 수덕사에 ‘재난복구지원본부(공동본부장 세영스님, 정념스님)’를 설치하고, 긴급 비용으로 중단 예비비 3000만 원을 지출하기로 결의했다. 또 12일부터 17일까지 충남 태안군 만리포에 매일 200여명, 연인원 1200여명의 조계종 자원봉사자와 사찰신도, 재단 산하시설 소속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해 현장 복구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14일에 예정되어 있던 1박 2일의 ‘2007년 중앙총무기관 총무원 전체 연수’가 취소돼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교역직 집행부 스님들과 200여명의 중앙총무기관 및 산하기관 총무원들이 태안지역 복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스님)도 지난 10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재난복구지원 자원봉사단을 구성, 오는 14일(11일 현재)부터 21일까지 피해현장에서 1차 복구활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본격적인 복구 지원에 앞서 사전답사팀이 11일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태안군청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봉사인력 필요 장소, 활동 내용, 활동 기간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협의를 마친 지난 11일 오후부터는 안내문, 현수막,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자원봉사자 모집에 나서는 한편, 복구 지원 물품 확보, 지원 성금 모금운동을 펼쳤다. 14일부터는 현지에 봉사단을 파견해 피해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지원 활동을 펼친다. 한편 수덕사에 설치된 조계종 재난복구지원본부는 상황실, 기획홍보반, 대외협력반, 자원동원반, 봉사활동반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12일부터 구호활동 조직가동, 자원봉사활동 준비, 협력단체 연계, 업무협약의 조정, 교계참여 촉구를 위한 해당 사찰 및 단체 공문 시달, 구호물품 전달, 사찰 중단별 참가, 사례 발굴, 홍보, 지속 파견 및 구호금품 모집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름피해’ 위로 자비행

심각한 기름유출사고를 당한 충남 해안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불교계의 자비행이 줄을 잇고 있다. 조계종 제 15교구본사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은 통도사 스님 100명과 서울 구룡사 및 일산 여래사 신도 200명 등 모두 300여명의 사부대중을 이끌고 17일 태안 현지를 방문해 구호활동을 벌였다. 정우스님은 조계종 총무원과 불교계 재난본부가 설치된 예산 수덕사, 태안군청에 각각 10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을 기탁하고 피해주민들을 위로했다. 스님은 “하루아침에 기가 막힌 현실에 처한 어민들의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 마음을 낼 수밖에 없었다”며 “성금 역시 필요한 곳에 바로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나누어 냈다”고 말했다. 한편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17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를 방문해 태안 기름유출 사고 복구를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실천승가회 사무처장 가섭스님은 “최근 태안의 기름유출의 조속한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본회 회원스님들을 중심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학업에 매진하던 강원 스님들도 사고현장으로 달려갔다. 운문사승가대학 학인 스님 200여명은 주지 진성스님과 강사 스님들의 인도 하에 지난 17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신두리 해수욕장에서 기름띠 제거작업에 몰두했다.

특히 이번 사고로 희생당한 조류와 어패류를 위한 천도재를 지내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주지 진성스님은 “학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강의와 법회, 울력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새벽같이 달려오게 됐다”며 “운문사 대중의 정성이 담긴 천도재로 하루속히 주민들이 평화를 찾고 생태계가 복원되길 빈다”고 밝혔다.

불교계 의료봉사자들도 두통과 매스꺼움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태안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을 보듬고 나섰다. 마하의료회(회장 손경수)와 고려대의료원불자회(회장 김우주)는 지난 16일 태안 신두리해수욕장에서 긴급의료봉사를 가졌다. 내과와 피부과 등의

진료과목 6 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참여한 이번 의료봉사는 4 시간 여 동안 50 여 명을 진료했다.

한편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을 비롯해 100 여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지난 15 일 서산지역을 찾아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기름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기름유출로 심각하게 오염된 어은들 해수욕장을 방문한 일행은 5 시간동안 바위와 모래사장 곳곳에 낀 기름을 제거하며 주민을 위로했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
불교방송 “마음의 향기” 12 월 3 일 방송분

진정한 행복 찾기

꿈과 희망은 인간의 삶과 의지를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원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꿈 과 희망이라는 것을 분석해 본다면 대부분 물질적 충족이나 출세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꿈과 희망을 이루는 것이 행복추구의 목적지로 본다면, 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을 닦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닦으며 즉 지혜를 닦으며, 밖으로는 보살행을 하므로 써 나도 이롭고 다른 이도 이롭게 하는 데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초발심 자경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년탐물은 일조진 이라” 라는 구절입니다.

즉 일생에 비교해 본다면 짧은 삼일 동안이지만 이 삼일 동안에 닦은 마음은 일천 보배의 재물과 같고, 일생 동안 탐하여 모은 물질은 잠깐 바람에 날리는 티끌처럼 허무하게 사라진다”라는 구절 입니다.

그런데, 경전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혜만 닦고 복은 닦지 아니하면, 나한이라도 응공이 박하고

복만 닦고 혜를 닦지 아니하면 코끼리 머리에 영락을 걸었나니 라”

즉 마음을 닦는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남을 이롭게 하는 행이 없다면 아무리 교리에 밝고 귀한 존재라도 빈궁함을 면할 길이 없고, 남에게는 이롭게 하는 보살행을 할 지라도 지혜를 닦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짐승의 머리에 칠보단장을 한 것과 같이 복은 있으나 지혜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한 부처님 제자라 한다면 지혜와 보살행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복과 지혜가 구족한 진정한 행복 찾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매일의 바쁜 일상생활이지만 이 두 가지를 항상 사유하며 주변의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나눌 수 있는 생활을 하며 수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

.....
BUDDHANARA TEMPLE (佛國寺) 무자년 정초 칠일 기도

천 개의 해가 떠서 비추듯
한없이 맑고 깨끗하신 부처님.
새해가 열리는 이 아침에 고요히 합장하고,
저희는 새 모습으로 발원합니다.

무한 공덕의 축복으로 태양은 떠오르고,
빛나는 생명 지혜, 끝없는 자비 덕성,
넘쳐 나는 희망과 용기의 햇살이
찬란히 펼쳐옵니다.

참 생명의 불성 공덕 드러내기 원하오며
저의 원력 더 큰 지혜와 자비로 빛내주옵소서.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 속에
희구하는 착한 일들 원만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불자님 가정과 좋은 인연 맺게 해주신 부처님 전에 감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국 중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영문이름: **Buddhanara Temple**)에서 불기 2551 년 (2006 년) 12 월 31 (양력)에 기도를 입재해서 불기 2552 년 (2008 년) 1 월 6 일 까지 무자년 정초 칠일기도를 봉행 했습니다. 기도 희망은 1 월 6 일은 무자년 들어서 처음 맞이하는 일요일에 있습니다. 새해에 기도 올리신 모든 신도님들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장애를 뛰어 넘어 무량한 복을 누리시길 축원 올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옵고, 소원 성취 하십시오.

무자년 정초 칠일 기도 동참하신 동참자 신도님 명단 입니다. 지면 관계상 소식지에 주소를 올리는 것은 생략 했습니다.

- 1) 을해생 무량화 문봉순
- 2) 건명 신해생 보광 이진욱, 곤명 갑인생 감로수 김미정, 장녀 계미생 이지원, 차녀 병술생 이주원 (단비)
- 3) 건명 경자생 문병현, 곤명 계묘생 서윤순, 장남 경오생 문은배, 차남 갑술생 문성민
- 4) 건명 임인생 문병귀, 곤명 정미생 권종연, 장남 계유생 문영배, 차남 병자생 문준영
- 5) 곤명 정미생 문수연, 장남 병자생 **Ryon Aquino**
- 6) 건명 기유생 문성훈, 곤명 경술생 최윤영, 장남 임오생 문현배
- 7) **IL-Kwon Kim (김 일권)**
- 8) 건명 기축생 김현웅, 곤명 계사생 김숙향, 차녀 기사생 김정아
- 9) 건명 병오생 도광 이찬혁, 곤명 기유생 이은정, 장녀 정축생 이지민
- 10) 건명 임진생 조남국, 곤명 무술생 현심행 김철아, 장남 갑자생 조민우
- 11) 건명 갑인생 조영우, 곤명 갑인생 한성혜
- 12) 건명 경인생 안승철, 곤명 갑오생 성숙경, 장남 기사생 안영주, 장녀 경신생 안정민, 차녀 계해생 안지영
- 13) 건명 정유생 박래경, 곤명 무술생 백련화 김효례, 장녀 기사생 박오뜸, 차녀 신미생 박꽃별, 삼녀 무인생 박셋별
- 14) 청신녀 정축생 김야모, 건명 을사생 송영찬, 곤명 경술생 김효진, 장남 정축생 손명욱, 차남 신사생 손명호, 장녀 기묘생 손해림
- 15) 건명 정유생 이용성, 곤명 경자생 진여성 신숙례, 장남 계해생 이상준, 차남 을축생 이상민
- 16) 건명 병오생 홍대선, 곤명 경술생 청정행 정혜주, 장남 무인생 현덕 홍준수
- 17) 청신사 경진생 김영희, 청신녀 갑신생 이희영, 건명 무신생 김태성, 곤명 계축생 수정화 이금주, 장남 신사생 김준협, 차남 정해생 김준성
- 18) 건명 정해생 김영목, 곤명 갑오생 길상화 유기화, 자 입술생 김 미, 경신생 김기영
- 19) 건명 을미생 이상돈, 곤명 무술생 이미란, 장녀 입술생 이선화, 장남 갑자생 이지형
- 20) 건명 병신생 정순범, 곤명 무자생 정정순, 장남 기사생 정영환
- 21) 건명 갑오생 배제현, 곤명 무술생 최문선, 장남 임신생 배민철, 장녀 병인생 배진, 차녀 무진생 배수진
- 22) 건명 무오생 김정옥, 곤명 강예자
- 23) 건명 임진생 김재상, 곤명 갑오생 최복영, 장남 계해생 김경근
- 24) 건명 정미생 황현식, 곤명 정미생 법와자 박계영, 장녀 무인생 황수연, 삼남 경진생 황준길
- 25) 청신녀 무진년 최춘자, 건명 갑오생 허정석, 곤명 기해생 허원미, 자 갑자생 허윤정, 자 기사생 허정민
- 26) 기묘생 최춘희
- 27) 병오생 정창준
- 28) 청신녀 임진생 김태순, 차녀 갑인생 이은숙, 장남 병진생 이동엽, 자부 정사생 최윤영, 손녀 정해생 이고운
- 29) 건명 을사생 송보영, 곤명 을사생 강효정, 임신생 송채원, 계유생 송지환
- 30) 건명 을사생 이준형, 곤명 병오생 강유경, 계유생 이지은, 병자생 이지현, 임오생 이지윤
- 31) 건명 신축생 심 용, 곤명 설선향 주정순, 장녀 을축생 심수경, 장남 기사생 심지태
- 32) 임진생 여현 장세동
- 33) 무신생 박수민
- 34) **Brian Barry**
- 35) 건명 병오생 노덕보, 곤명 을사생 박인주
- 36) **Yumi Benton (한 누미자), 한 재근**
- 37) 입술생 한 동빈
- 38) 건명 경진생 능공 신봉길, 곤명 을미생 금강심 서선영, 장남 을축생 **Andrew Shin**, 차남 경오생 **Steve Shin**
- 39) 청신녀 기사생 김재수, 장녀 을미생 **Tong Stanley**, 삼녀 을사생 김수현
- 40) 건명 경술생 오상준, 곤명 계해생 도혜란, 장남 계미생 오진혁, 차남 병술생 오성훈
- 41) 건명 임진생 이병국, 곤명 병신생 법화심 조영숙
- 42) 건명 기유생 백유상, 곤명 지우 류정아, 장남 병자생 백옥태, 장녀 경진생 백정이
- 43) 건명 임인생 송완근, 곤명 임인생 임영애, 장녀 신미생 송미경, 장남 계유생 송주열
- 44) 계묘생 임경순
- 45) 건명 **Lawson Robinson** 곤명 **WooIn Robinson**, 장남 **Rigel Robinson**, 차남 **Kentaurus Robinson**, 삼남 **Chiron Robinson**, 사남 **Lawson Robinson**
- 46) 건명 정유생 정재한, 곤명 경자생 이해경, 장남 정묘생 정진영, 장녀 기사생 정수빈

법회소식 NEWS

- 무자년 쥐띠해 가 밝았습니다. 2008 년에도 2007 년과 마찬가지로 주위 분들이 부처님법에 의지해서 인생을 보람되게 살수 있도록 불자님들 가까이에 계신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에도 전법 많이 합시다.
- 음력 12 월 8 일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고 중생제도를 하신지 올해로 2551 번째 맞이하는 성도재일 입니다. 음력 12 월 8 일은 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시어 사생자부, 과거현재 미래와 우주의 대 스승이 되신날 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날을 기려서 불자들은 철야 정진을 통해 더불어 마음에 불성을 밝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에서도 대한 불교 조계종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올해에도 철야 용맹 정진을 합니다. 참고로 성도재일은 음력 12 월 8 일이고, 양력으로는 1 월 15 일 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성도재일 철야 정진에 참가하시길 바라면서 정진 날짜는 둘째주 토요일 밤으로 정했습니다. 철야정진은 1 월 12 일 토요일 저녁 9 시에 시작하여 다음날이 일요일 아침 6 시에 아침 예불과 함께 회향 합니다. 성도재일 철야 정진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2 째주에 성도재일 철야 정진이 있는 관계로 인등기도는 3 째주에 있고 “보광 이진옥 박사님과 함께하는 교리탐구”는 1 월에는 쉽니다.
- 불국사 총무님의 둘째따님인 “단비 (이 주원)”의 둘째 양력으로 11 월 8 일이고, 청운화 Robinson 보살님의 넷째 아드님의 백일이 12 월 24 일 이었습니다. 두분 가정의 경사를 축하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녀분들이 장애없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길 부처님 전에 불국사 신도님과 함께 일심으로 축원 올립니다.
- 현재 불국사에서 연등 만들기 위한 가장 처음 시작 단계인 “연잎 비비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잎 비비는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불자님들은 연잎 작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양력으로 2 월 7 일은 한국 전통 명절인 음력 설날 입니다. 불국사에서 2 월 첫째주 (2 월 3 일) 일요일에 부처님전에 떡국을 올리고 세배를 올리는 세알 법회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잊지 마시고 부처님께서 주시는 새배돈을 잊지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점심 공양 후에는 웃놀이도 있습니다.

12 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76 번 정사생 김대도, 203 번 계유생 강태원, 267 번 신축생 김문옥, 268 번 기사생 이견영, 269 번 병인생 이혜영, 344 번 을해생 유소현, 407 번 경신생 안주현, 408 번 계해생 안진형.

2008 년 1 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221 번 신해생 김신지, 270 번 기미생 조용철, 292 번 을미생 배성호, 303 번 임진생 여현 장세동, 308 번 기유생 문성훈, 309 번 경술생 최윤영, 310 번 임오생 문현배, 312 번 병오생 서명철, 443 번 임인생 배영우, 444 번 정미생 이순옥, 445 번 임신생 배지원, 446 번 신묘생 박기순, 447 번 경오생 조영자, 448 번 임술생 김 주리엿.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 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화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 11 월, 12 월 한 평 불사 동참자: 병인생 김선태, 무신생 박수민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회장님 및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